

울산지역 근로자의 보철물과 임플란트의 기대수준에 대한 인식

Perception on Expectation of Prosthetics and Implant of Workers in Ulsan

조미숙*, 김창숙**

춘해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울산과학대학교 치위생과**

Mi-Suk Cho(cms4935@ch.ac.kr)*, Chang-Suk Kim(cskim@uc.ac.kr)**

요약

본 연구는 울산시에 소재하는 H기업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여한 307명을 대상으로 보철물(틀니, 브릿지)과 임플란트 기대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환자교육 및 상담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보철물 기대수준의 신뢰도 cronbach'α는 .971, 임플란트 기대수준의 신뢰도 cronbach'α는 .967로 높게 나타났고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보철물 기대수준은 평균 3.98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플란트 기대수준은 평균 3.74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임플란트 기대수준은 평균 3.74점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3). 넷째, 구강위생관리 관심정도에 따른 임플란트 기대수준의 차이는 평균 3.74점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0<0.001). 다섯째, 보철물 기대수준과 임플란트 기대수준은 0.392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위의 결과로 보철과 임플란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기대수준 | 근로자 구강건강 | 임플란트 |

Abstract

This study has surveyed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based on the data you want to utilize the expectations on dental prosthetic appliances (denture, bridge) and implants among 307 workers who participated in reservists mobilization training of Hyundai Heavy Industries located in Ulsan City. The reliability of expectations on dental prosthetic appliances and implants were fairly high at cronbach'α of .971 and .967 respectively.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through IBM SPSS Statistics. v. 19.0 program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0.05.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xpectations on prosthetic appliances scored an average of 3.98. Second, the expectations on implants scored an average of 3.74. Third, the expectations on implants depending on subjective health status scored an average of 3.74, which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03). Fourth, the differences in expectations on implants depending on the concerns for oral hygiene care scored an average of 3.74, which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0<0.001). Fifth, the expectations on prosthetic appliances and implants were strongly correlated at 0.392. As a result of implants of prosthodontics need for accurate information transfer.

■ **keyword** : | Expectations | Oral Health of Workers | Implant |

* 이 논문은 2014년도 춘해보건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된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접수일자 : 2014년 02월 17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3월 28일

수정일자 : 2014년 03월 28일

교신저자 : 김창숙, e-mail : cskim@uc.ac.kr

I. 서론

Branemark에 의해 골유착(osseointegration)의 개념이 도입된 이래 임플란트는 일반 보철치료보다 수명이 길고 틀니의 불편감을 해소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1] 지난 20여년 동안 꾸준히 활성화되면서, 미국에서는 연간 100만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시술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연간 5만 여개의 임플란트가 시술되는 것으로 추정된다[2].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임플란트의 급여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는 민간보험의 등장과 더불어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3].

임플란트는 일반적으로 생체조직의 결손이나 외관의 회복을 위하여 동종의 자가조직 및 타가조직 또는 인공물들을 생체 내에 매입하는 것으로 치조골 또는 악골 내에 생체친화적인 매식체를 식립하여 자연치아와 같은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다[4]. 임플란트에 의한 보철 치료는 무치악 환자의 치료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5][6] 높은 성공률과 함께 부분 무치악 환자의 치료[7] 뿐 아니라 단일 상실치아의 수복까지 확대되어 현재에는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8][9].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심미적 기능을 강화하는 치과 임플란트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10], 상실된 치아를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일반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11]. 이와 같이 임플란트는 치과 의료계의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치과의사와 환자간의 치료의 결과 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12] 환자들의 만족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13]. 그동안 임플란트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임상적인 관점에서의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평가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외에, 치과병·의원에 내원한 환자 중 임플란트를 식립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연구와 내원 환자의 임플란트 지식 등을 평가하는 연구[1][10][11][13]등으로 구분되어졌다.

신문기사[14]에 따르면 울산시는 201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인구증가율이 수도권과 제주도를 제외하여 전국 1위이다. 울산시의 인구증가율 요인으로 14개 산

업단지의 조성과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등 많은 기업체를 유치한 결과로 보고하였다. 울산시는 타 지역에 비해 근로자의 수 즉, 경제활동인구의 수가 많다. 이들은 울산시의 주요 의료소비계층이며, 이들의 보철물과 임플란트에 대한 기대수준을 파악한다면 환자 상담 및 교육에 있어 전반적인 지식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울산지역의 기업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H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철물과 임플란트에 대한 기대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연구 대상자의 치과치료 시 보철과 임플란트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환자 교육 및 상담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H기업 예비군 동원훈련에 참여한 3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취지를 밝히고 설문내용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할 것인지 실시하였다. 구강보건교육 시행 후에는 설문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모든 설문은 구강보건교육 시행 전에 응답 후 회수하였고, 이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한 총 3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문항은 이[13]와 정[15]의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문항은 일반적인 문항 4문항, 구강위생에 관한 3문항, 치과치료에 관한 4문항, 보철물 기대수준에 관한 10문항 및 임플란트 기대수준에 관한 13문항을 포함한 총 3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 중 보철물 기대수준과 임플란트 기대수준은 5점 리커트(Likert)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마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대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

령은 27-28세로 나타나 연령별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으며 학력은 고졸이하 2명, 대졸이상이 305명으로 나타나 분석 변수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소득변수도 동일직장에서 연령과 학력이 거의 같은 조건이다 보니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300명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에 있어 의미를 찾을 수 없기에 제외한 후 분석하였다. 보철물 기대수준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71, 임플란트 기대수준의 신뢰도는 .96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로 고려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보철물 기대수준과 임플란트 기대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 주관적 개인건강상태와 구강위생관리 관심 정도에 따른 보철물과 임플란트에 대한 인식차이는 one 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철물 기대수준과 임플란트 기대수준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성적

1.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 특성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 특성은 치과정기검진을 받는 대상자가 53.7%, 하루양치 횟수는 3회 이상이 49.2%, 6개월 동안 치과방문횟수는 1-2회가 50.2%와 3-4회가 49.8%, 발치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30.9%, 치아를 발치 후 시술 받고 싶은 보철물은 임플란트가 76.9%, 보철물(틀니, 브릿지)이 23.1%, 보철물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점으로는 심미성이 48.9%, 비용이 43.3%, 저작기능이 7.8% 및 발치 후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대답이 91.5%로 나타났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구강보건 특성

구분	구분		N	%
	정기검진	비정기검진		
치과정기검진	정기검진	비정기검진	165	53.7
하루양치횟수	1회		26	8.5

치과방문횟수	2회	130	42.3
	3회 이상	151	49.2
	1-2회	154	50.2
발치경험	3-4회	153	49.8
	발치	95	30.9
발치 후 보철물 종류	미발치	212	69.1
	임플란트	236	76.9
보철선택 시 고려사항	일반보철물	71	23.1
	비용	133	43.3
	심미	150	48.9
발치 후 임플란트 필요	저작기능	24	7.8
	필요	281	91.5
필요	불필요	26	8.5
	합계	307	100.0

2. 보철물 기대수준

표 2. 보철물 기대수준

구분	Mean	SD
딱딱한 음식이나 고기 같은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다	4.13	1.340
발음이 명확해진다	3.97	1.453
음식을 잘 씹을 수 있어 건강에 도움을 준다	4.10	1.357
외모가 좋아진다	3.86	1.467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다	3.97	1.428
자신감이 생긴다	3.93	1.423
성격이 적극적으로 된다	3.73	1.479
대인관계가 좋아진다	3.74	1.505
치료비가 비싸다	4.24	1.435
치료기간이 길다	4.12	1.464
합계	3.98	1.278

연구대상자의 보철물(틀니, 브릿지) 기대수준은 평균 3.98점으로 나타났다. 보철물은 '치료비가 비싸다'가 4.2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딱딱한 음식이나 고기 같은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다'가 4.13점, '치료기간이 길다'가 4.12점 및 '음식을 잘 씹을 수 있어 건강에 도움을 준다'가 4.10점으로 나타나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저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격이 적극적으로 된다'가 3.7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대인관계가 좋아진다'가 3.74점으로 나타났다[표 2].

3. 임플란트 기대수준

연구대상자의 임플란트에 대한 기대수준 평균점수는 3.74점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성공여부에 구강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가 4.1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플란트 성공여부에 시술기구의 소독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17점, '임플란트 성

표 3. 임플란트 기대수준

구분	Mean	SD
임플란트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3.81	1.256
임플란트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3.80	1.219
임플란트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3.61	1.357
임플란트는 평생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18	1.566
임플란트는 성공률이 90%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46	1.316
임플란트는 수입제품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3.28	1.469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비슷한 심미성(보이는 것)을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3.39	1.330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비슷한 저작능력(씹는 능력)을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3.46	1.328
임플란트는 정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04	1.230
임플란트 성공여부에 치과의사의 경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11	1.272
임플란트 성공여부에 시술기구의 숙련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17	1.182
임플란트 성공여부에 구강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18	1.181
임플란트 성공여부에 술, 담배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4.08	1.296
합계	3.74	1.278

공여부에 치과의사의 경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11점, '임플란트 성공여부에 술, 담배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4.08점, 및 '임플란트는 정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가 4.04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플란트는 평생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가 3.1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임플란트는 수입제품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3.28점,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비슷한 심미성(보이는 것)을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가 3.39점 및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와 비슷한 저작능력(씹는 능력)을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가 3.46점으로 나타났다[표 3].

4.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보철물 기대수준과 임플란트 기대수준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임플란트 기대수준의 차이는 평균 3.74점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편이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평균 4.08점으로 임플란트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이다'와 '건강하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각각 3.66점과 3.41점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3)[표 4].

표 4.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보철물 기대수준과 임플란트 기대수준의 차이

특징	보철물 기대수준			임플란트 기대수준			
	Mean	SD	p-값	N	Mean	SD	p-값
건강하지 않다	3.68	1.019	.126	38	3.41 ^a	.361	.003**
보통이다	3.96	1.280		189	3.66 ^{ab}	1.036	
건강한 편이다	4.18	1.361		80	4.08 ^b	1.404	
합계	3.98	1.278		307	3.74	1.110	

p<0.01**

표 5. 구강위생관리 관심정도에 따른 보철물 기대수준과 임플란트 기대수준의 비교

특징	보철물 기대수준			임플란트 기대수준			
	Mean	SD	p-값	N	Mean	SD	p-값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다	4.01	1.474	.581	29	4.08 ^a	1.789	.001***
보통이다	3.92	1.282		153	3.58 ^{ab}	.880	
관심을 두는 편이다	4.05	1.230		125	3.85 ^b	1.138	
합계	3.98	1.278		307	3.74	1.110	

p<0.001***

5. 구강위생관리 관심정도에 따른 보철물 기대수준과 임플란트 기대수준의 비교

연구대상자의 구강위생관리 관심정도에 따른 임플란트 기대수준은 평균 3.74점으로 나타났다. 구강위생관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다’에서 임플란트 기대수준이 4.08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관심을 두는 편이다’에서 3.85점 및 ‘보통이다’가 3.58점으로 낮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1$) [표 5].

6. 보철물 기대수준과 임플란트 기대수준의 상관관계

표 6. 보철물 기대수준과 임플란트 기대수준의 상관관계

	보철물 기대수준	임플란트 기대수준
보철물 기대수준	1	
임플란트 기대수준	.392**	1

$p < 0.01^{**}$

측정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보철물 기대수준과 임플란트 기대수준은 0.392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표 6].

IV. 고찰

근로자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근로자의 건강은 기업체의 생산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16].

근로자들은 매년 건강 및 구강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1999년 60.9%에서 2001년에는 59.7%로 매년 낮아지고 있고, 일반 건강검진이 80%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실정이다[17].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위해서는 이들에게서 발생하는 구강상병이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 내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과 지속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18].

전통적인 상설 치아의 수복 방법으로 가철성 국부의

치 또는 고정성 국부의치 및 브릿지 치료의 보편화를 거쳐, 현재에는 기능적·심미적인 측면에서 자연치와 가깝고 인접치에 영향이 없는 임플란트가 개발되어 널리 시술되고 있다[19]. 임플란트는 식립보다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로 하여금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과 철저한 구강보건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자의 보철물과 임플란트에 대한 기대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차후 시행될 보철과 임플란트에 대한 만족도와 기대를 높임과 동시에 환자 교육 및 상담에 효과적인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연구대상자의 발치경험(사라나 제외)은 30.9%로 나타났고 발치 후 시술받고 싶은 보철물은 임플란트가 76.9%, 보철물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점으로는 심미성이 48.9%, 비용이 43.3%, 저작기능이 7.8% 및 발치 후 임플란트의 필요성은 91.5%로 나타났다. 보철물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심미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저작기능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외모를 중요시하는 젊은 연령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기에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어지고 추후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윤[20]은 저작능력은 치아의 건강이 전신건강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이라고 하였고 임플란트 및 틀니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저작능력을 손꼽았다. 이는 본 연구의 설문지 작성 후 시행된 구강보건교육에 포함된 내용으로, 대상자들로부터 하여금 인식의 변화를 충분히 일으켰을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연구대상자의 보철물 기대수준은 평균 3.98로 나타났고 ‘치료비가 비싸고 치료기간이 길다’와 ‘딱딱한 음식이나 고기 같은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다’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13]의 전국 14개 지역의 치과 병·의원 20곳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와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임플란트에 대한 기대수준은 평균 3.74점으로 나타났고 임플란트에 대한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 구강위생관리, 기구의 소독, 치과외사의 경력 및 술, 담배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문항에 대한 기대수준 점수 또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자연치아와 비슷한 심미성이나 저작능력을 묻는 질문의 점수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환자의 상담 및 구강보건교육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유와 심[21]은 치과 병(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플란트 기술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임플란트 재료 순으로 답하였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 후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담배가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응답과 임플란트 시술기구의 소독여부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보철물 기대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임플란트 기대수준은 평균 3.74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즉,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한 편이다'의 대상자에서 임플란트 기대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상자에서 기대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건강상태에 구강건강도 포함된 의미의 해석으로 사료되며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일수록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낮고, 반면에 수술 후의 결과에 대하여 호의적인 반응과 기대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어지며 추후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구강위생관리 관심도에 따른 보철물 기대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임플란트 기대수준의 평균 점수는 3.74점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즉, 구강위생관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 대상자에서 4.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인 대상자가 3.58점으로 나타났으며 관심을 두는 대상자에서 3.7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강위생관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 대상자는 자연스럽게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본인이 인지할 가능성이 크고, 본인이 불량한 구강건강상태를 임플란트로 해결하고 싶은 심리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

보철물 기대수준과 임플란트 기대수준의 상관관계는 0.392의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울산지역에 소재한 기업 한곳만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을 이용한 연구이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예비군 훈련 대상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기에 연령이나 소득 등 개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울산시 산업도시의 특성상 경제활

동인구의 대부분이 근로자임을 고려할 때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들의 치과병·의원의 주요 소비계층임을 감안할 때 보철물과 임플란트에 대한 기대수준을 확인함으로써 치과진료뿐 아니라 상담 및 환자교육 시 유용한 자료로 이용되리라고 사료되어지며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적인 특성이 다양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할 계획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울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H기업의 근로자 307명을 대상으로 보철물과 임플란트에 대한 기대수준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환자상담과 정확한 진료정보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4년 2월 3일부터 6일까지 조사하였고 수집한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 One-way ANOVA분석 및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발치 경험은 30.9%로 나타났고, 발치 시 시술받고 싶은 보철물은 임플란트가 76.9%로 나타났다. 보철물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점은 심미성으로 나타났고, 발치 후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대답이 91.5%로 나타났다.

둘째, 보철물 기대수준은 평균 3.98점으로 나타났고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높게 나타났으며, 저작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플란트에 대한 기대수준은 평균 3.74점으로 나타났고, 임플란트 성공여부는 환자의 구강위생관리와 시술 시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임플란트 기대수준은 평균 3.74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다섯째, 구강위생관리 관심도에 따른 임플란트 기대수준은 평균 3.74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여섯째, 보철물 기대수준과 임플란트 기대수준은 0.392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1$)

이상의 결과로, 보철과 임플란트 치과진료 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본다.

참 고 문 헌

[1] 장봉준,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임플란트 선택 동기,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 Carl E. Misch, 최신 임플란트 치과학, 제2판, 나래출판사, 2000.

[3] <http://www.dentalnews.co.kr/news/201403>.

[4] 황윤숙, 치과 임플란트학, 대한나래출판사, 2006.

[5] R. Adell, U. Lekholm, B. Rockler, P. I. Branemark, "A 15-year study of osseointegrated implants in the treatment of the edentulous jaw," Int J Oral Surg, Vol.10, No.6, pp.387-416, 1981.

[6] R. Adell, B. Eriksson, U. Lekholm, P. I. Branemark, and T. Jemt, "Long-term follow-up study of osseointegrated implants in the treatment of totally edentulous jaws," Int J Oral Maxillofac Implants, Vol.5, No.4, pp.347-359, 1990.

[7] T. Jemt, U. Lekholm, and R. Adell, "Osseointegrated implants in the treatment of partially edentulous patients: a preliminary study on 876 consecutively placed fixtures," Int J Oral Maxillofac Implants, Vol.4, No.3, pp.211-217, 1989.

[8] B. E. Pjetursson, I. Karoussis, W. Burgin, U. Bragger, and N. P. Lang, "Patients' satisfaction following implant therapy. A 10-year prospective cohort study," Clin Oral Implants Res, Vol.16, No.2, pp.185-193, 2005.

[9] P. Simonis, T. Dufour, and H. Tenenbaum, "Long-term implant survival and success: a 10-16-year follow-up of non-submerged dental

implants," Clin Oral Implants Res, Vol.21, No.7, pp.772-777, 2010.

[10] 유은미, 임플란트 환자의 만족도 및 저작능력 연구 틀니환자와 비교하여, 원주연세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1] 김수관, 손순룡, 정선아, 정미애, "치과임플란트 대상환자의 치료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1호, pp.264-273, 2011.

[12] M. A. Van Waas, "Determinants of dissatisfaction with denture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J Prosthet Dent, Vol.64, pp.569-572, 1990.

[13] 이레라,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환자의 지식과 기대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4] <http://www.new1.kr/articles/>

[15] 정준역, 치과 병·의원에 내원하는 임플란트 환자의 실태 및 만족도,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6] 장기완, 황윤숙, 김진범, 송윤신, 백대일, 최부근, 구강보건교육학, 제 4판, 고문사, 2007.

[17] 보건복지부, 건강검진결과분석, 보건복지부, 2002.

[18] 고대호, 산취급산업장근로자의 구강상병기인 근로손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19] B. E. Pjetursson, I. Karoussis, and W. Burgin, "Patients satisfaction following implant therapy, A 10-year prospective cohort study," Clin Oral Implants Res, Vol.16, No.2, pp.185-193,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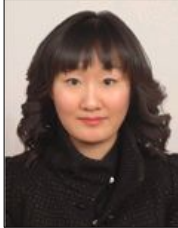
[20] 이미옥, 윤현서, "부산지역 치과환자의 임플란트 유형 및 분포 경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8호, pp.274-282, 2010.

[21] 유은미, 심현주, "치과의료소비자의 임플란트에 대한 지식과 기대도의 관련성", 한국치위생과학회, 제10권, 제4호, pp.219-225, 2010.

저 자 소 개

조 미 숙(Mi-Suk Cho)

정회원



- 2013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의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춘해보건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관심분야> : 구강보건교육학, 공중구강보건학

김 창 숙(Chang-Suk Kim)

정회원



- 2013년 2월 : 영남대학교 대학원 보건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관심분야> : 치의학, 공중보건학, 역학